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8. 25(수) 총 14매(본문 10, 참고4)	
국토 교통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과장 장우철, 서기관 유지만, 사무관 좌명환, 홍승희, 이종곤, 김미리 ☎ (044) 201 3325, 3333	
	주택기금과	담당자	·과장 배성호, 사무관 신익승·남일 ☎ (044) 201-3338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과장 이주열, 사무관 김무극 ☎ (044) 201-3438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과장 최용현, 사무관 박장근 ☎ (044) 201-4524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과장 양희관, 사무관 정재원 ☎ (044) 201-4505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25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 신규 사전청약 추가공급 착수... 공급효과 조기화 기대

- 태릉·과천 개발구상 확정 등 8.4대책 속도도 빨라져 -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신뢰 형성

① 사전청약 확대

- 1) `24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사전청약 10.1만호를 추가로 실시*하고, 既매각된 택지 내 공급예정 물량 6.4만호의 분양 조기화도 병행 추진
 * (기존) 공공택지 공공시행 사업(6.2만호) + (신규)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8.7만호) + 3080*사업(1.4만호)
- 2) 신규 사전청약 中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8.7만호)의 70%가 수도권에서 공급,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평형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 공급
 * 민간시행 감안 : 청약자 보호(예비입주자 모집제도) 및 사업자 지원(택지구대·미분양 매입)
- 3) 신규 사전청약 中 3080* 사업(1.4만호)의 `22.下 물량은 100% 서울도심, 기존 재개발·재건축 보다 지구지정→분양까지 최대 11~12년 단축가능

②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

☞ 8.4대책 목표 물량 달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함께 개발구상 보완 후 주민공람 등 본격 개발절차 착수

* (태릉) 태릉골프장 부지 6.8천호 + 인근 3.1천호 / (과천)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3천호 + 신규1.3천호

- 그간 정부는 '17.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습니다.

* 現 정부('17~'20) 연평균 택지지정 실적 9.1만호 > '08~'16년 평균 2.8만호의 3배 이상

-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5.6, 8.4, 3080+ 대책)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 그 결과,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나,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 등으로 인해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은 '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 장래 공급전망 검토('21~'30, 민간공급물량 포함) >

		10년 평	5년 평	'20	'21 ^e	'22 ^e	'21~'30년 ^평
전국	전체	46.9	54.0	47.1	46.0	48.9	56.3
	아파트	31.7	39.3	37.3	32.2	37.4	43.6
수도권	전체	23.4	27.7	25.0	27.9	27.6	31.4
	아파트	14.8	18.9	19.4	18.6	20.3	23.5
서울	전체	7.3	7.8	8.2	8.3	8.1	10.7
	아파트	3.7	4.2	5.7	4.2	3.6	7.0

* '23년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5.0만호로 전망

- 반면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차주의 차입부담 감소 및 자산투자 선호, 집값 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既 발표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하여 총 10.1만호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既 발표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태릉지구·과천청사 개발 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 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1.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합니다.

*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이 완료되어 본 지구지정 등이 가시화되어 있는 도심 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①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수도권 7.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4만호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 추진

- 이번 방안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3만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됩니다.
- 특히, 16.3만호 중 13.3만호가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2만호 + 新 사전청약 7.1만호)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3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입니다.

<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물량 >

	합계	'22년 까지				'23년 이후		
		계	'21.下	'22.上	'22.下	계	'23.上	'23.下~'24.上
총 계	16.3	10.0	3.8	3.1	3.1	6.3	1.6	4.7
신규 사전청약	10.1	3.8	0.6	1.6	1.6	6.3	1.6	4.7
공공택지 민간(신규)	8.7	3.4	0.6	1.6	1.2	5.3	1.1	4.2
3080+ (신규)	1.4	0.4	-	-	0.4	1.0	0.5	0.5
現 사전청약	6.2	6.2	3.2	1.5	1.5	-	-	-

□ 또한 既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4만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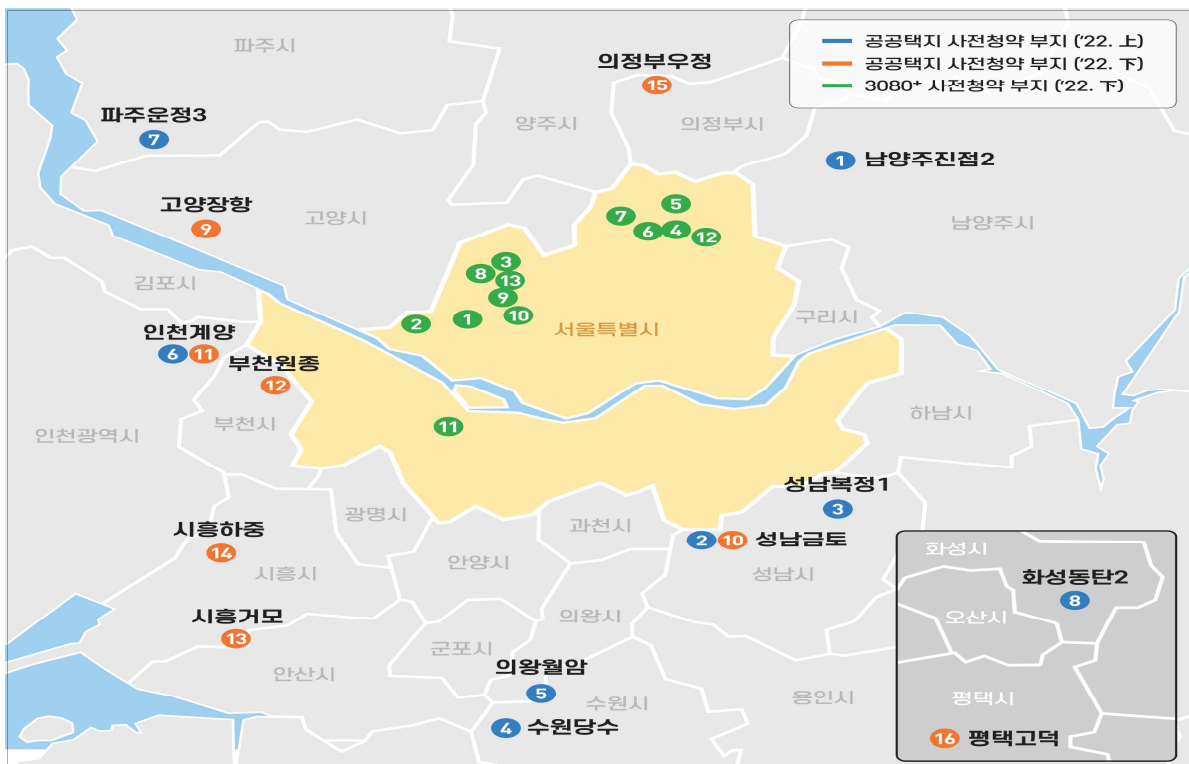
○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되어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첫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8.7만호 조기 공급, 수요자 선호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

□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 로드맵」(17.12)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18.9)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4년 상반기까지 총 8.7만호 물량을 공급합니다.

○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수도권) >



-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평형별 비중(20년) : (공공분양) 60㎡미만 33.7% / 60㎡~84㎡ **62.1%** / 84㎡ 이상 **4.2%**
(민간시행) 60㎡미만 10.2% / 60㎡~84㎡ **73%** / 84㎡ 이상 **16.8%**

-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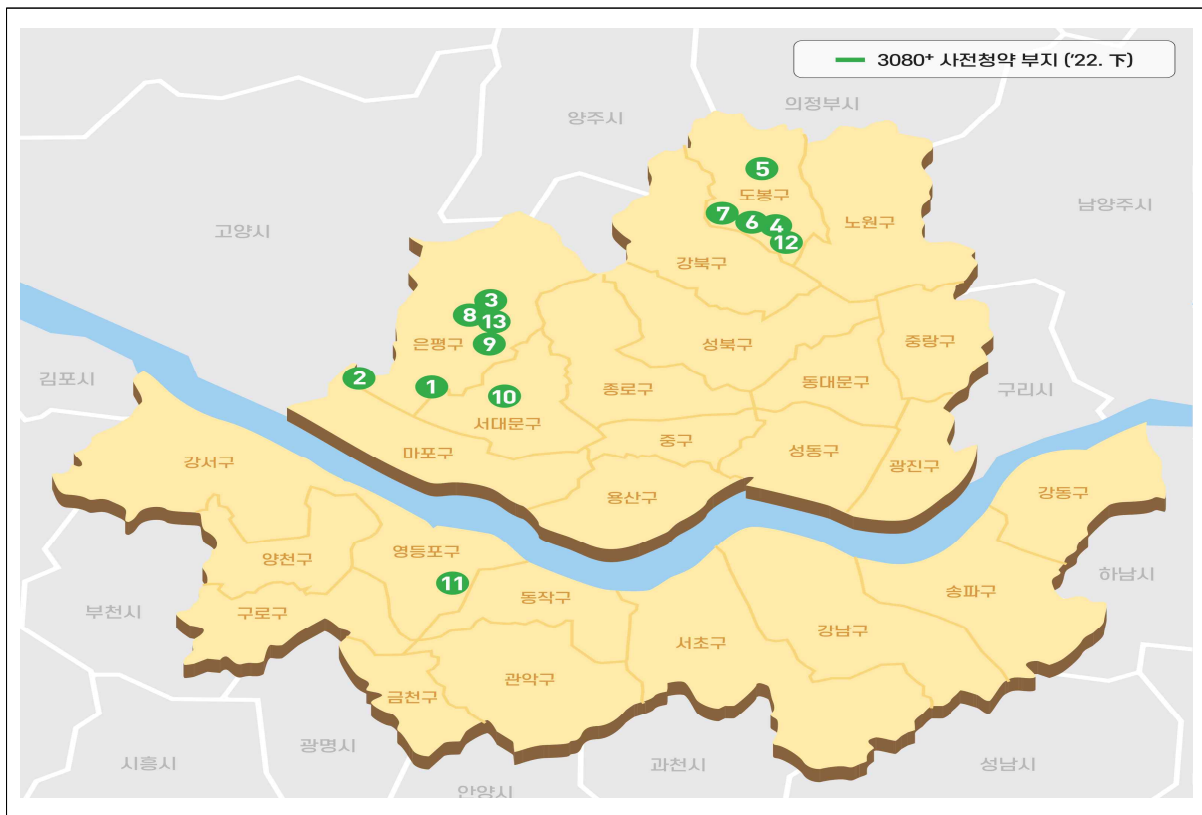
-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합니다.
 -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 한편,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③ '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1.4만호 조기 공급

□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총 1.4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됩니다.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9만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3080+ 공공사업 주민동의 요건 확보 부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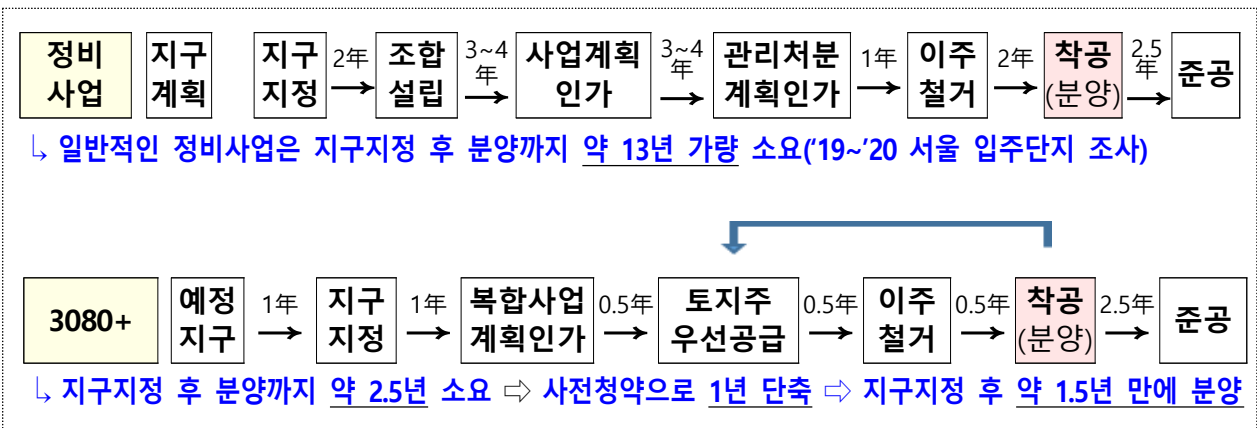


2/3 충족	13곳 (약1.9만호)	①증산4, ②수색14, ③불광1 근린공원, ④쌍문역 동측, ⑤방학역, ⑥쌍문역 서측, ⑦쌍문1동 덕성여대, ⑧연신내역, ⑨녹번동 근린공원, ⑩고은산 서측, ⑪신길2, 창동674 인근, 불광329-32 인근	⇒ '22.下
50% 충족	7곳 (약0.75만호)	방학초교 인근, 신길15구역, 녹번역 인근, 수유12구역, 미아16구역, 용마터널인근, 창2동 주민센터	
30% 충족	7곳 (약1만호)	신길4구역, 미아역 동측, 송중동주민센터인근, 삼양역 북측, 캠프조지 인근(대구), 제물포역 인근, 상봉터미널	⇒ '23.上
10% 충족	7곳 (약0.9만호)	영등포역 인근, 새절역 동측,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가산디지털역 인근, 용마산역 인근, 용두청량리역 인근	

□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Fast-Track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080+ 및 사전청약의 공급 조기화 효과 >



○ 따라서 주민동의(2/3) 요건을 충족하여 금년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겠습니다.

④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

1)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하였습니다.

-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발구상)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조정(1만호→ 6.8천호* 수준)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1만호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개발밀도 조정) 284인/ha→193인/ha / 통상의 공공주택사업지구 개발밀도는 198~219인/ha

-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백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백호), 하계5단지(1.5천호)·상계마을(4백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했습니다.

- 아울러,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하겠습니다.

- (공원·녹지)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합니다.

* 평균 공원녹지율 : (과거 기존택지) 25%, (개발 중인 100만㎡ 이하 중규모 택지) 30%

-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24만㎡)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재) 사업지구 내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 태릉지구는 금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 '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4년 입주자모집 및 '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천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천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지난 6월 청사 유휴지 개발 대신 대체 공급방향 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발방안 확정

■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 3천호)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호*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 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168→188%) 7백호 +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 1.5천호 +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500→600%) 및 주거비율 상향(6대4→7대3) 등을 통한 약 8백호

- 과천신도시는 용도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의 공공주택지구(10% 내외)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됩니다.

■ (신규택지 공급 1.3천호) 이와 함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하여 1.3천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 약 12만㎡의 중규모 지구(GB)로, 인덕원역 반경 0.5km 내 위치하는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2.上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22.上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 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금번 태릉·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전청약 확대 방안」 관련 주택정책과 이종곤 사무관(044-201-3325), 「태릉·과천지구」 관련 공공택지기획과 정재원 사무관(044-201-45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태릉지구 조감도(예시) 및 과천갈현지구 위치도

□ 태릉지구 조감도



□ 과천갈현지구 위치도



참고 2

향후 매각예정부지 및 既매각부지 리스트

※ "밑줄"은 2기 신도시 / "밑줄"은 3기 신도시

① (매각예정부지 8.8만호) 6개월 내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 추진

■ 수도권 60,136호	■ 지방 27,748호(50B)
<p>- '21.下, 9,019호</p> <p>① 남양주(진접2): 1,431호 ⑤ 의왕(월암): 731호 ② 성남(금토): 336호 ⑥ <u>인천(계양): 1,312호</u> ③ 성남(북정1): 510호 ⑦ <u>파주(운정3): 2,600호</u> ④ 수원(당수): 1,149호 ⑧ 화성(동탄2): 950호</p>	<p>- '21.下, 2,202호</p> <p>① 행정중심복합도시: 318호 ② 괴산(미니복합타운): 417호 ③ 대구(연호): 498호 ④ 밀양(부북): 375호 ⑤ 광주(선운2): 594호</p>
<p>- '22.上, 8,402호</p> <p>① 고양(장항): 760호 ⑤ 시흥(거모): 1,610호 ② 성남(금토): 216호 ⑥ 시흥(하중): 1,124호 ③ <u>인천(계양): 1,881호</u> ⑦ 의정부(우정): 826호 ④ 부천(원종): 205호 ⑧ <u>평택(고덕): 1,780호</u></p>	<p>- '22.上, 6,478호</p> <p>① 괴산(미니복합타운): 436호 ② 울산(다운2): 2,118호 ③ 창원(명곡): 349호 ④ 경산(대임): 593호 ⑤ 칠곡(북삼): 648호 ⑥ 남원주역세권: 2,078호 ⑦ 익산(소라): 256호</p>
<p>- '22.下, 9,188호</p> <p>① <u>양주(회천): 1,280호</u> ⑤ 군포(대야미): 1,501호 ② 남양주(양정): 1,906호 ⑥ <u>부천(대장): 1,914호</u> ③ 남양주(진접2): 397호 ⑦ 안양(매곡): 281호 ④ 시흥(거모): 1,010호 ⑧ <u>인천(계양): 899호</u></p>	<p>- '22.下, 3,603호</p> <p>① 괴산(미니복합타운): 435호 ② 부산(강동): 403호 ③ 울산(다운2): 960호 ④ 울산(태화강변): 315호 ⑤ 경산(대임): 861호 ⑥ 칠곡(북삼): 629호</p>
<p>- '23년, 33,527호</p> <p>① <u>인천(계양): 1,396호</u> ⑩ <u>고양(창릉): 4,592호</u> ② <u>부천(대장): 3,447호</u> ⑪ 고양(탄현공원): 1,181호 ③ 과천(과천): 1,147호 ⑫ 구리(갈매): 947호 ④ 부천(역곡): 1,690호 ⑬ 안산(장상): 2,569호 ⑤ 부천(종합운동장): 277호 ⑭ <u>남양주(왕숙): 2,183호</u> ⑥ 성남(낙생): 995호 ⑮ <u>남양주(왕숙2): 1,209호</u> ⑦ 안산(신길2): 1,191호 ⑯ 수원(당수): 1,292호 ⑧ 용인(언남): 2,346호 ⑰ 의왕(청계2): 370호 ⑨ <u>하남(교산): 2,365호</u> ⑱ <u>인천(검단): 1,326호</u> ⑳ <u>평택(고덕): 3,004호</u></p>	<p>- '23년, 15,465호</p> <p>① 행정중심복합도시: 2,319호 ② 괴산(미니복합타운): 143호 ③ 부산(명지2단계): 4,440호 ④ 경산(대임): 897호 ⑤ 칠곡(북삼): 1,317호 ⑥ 사천(선인): 611호 ⑦ 목포(임성): 3,911호 ⑧ 오송(화장품): 659호 ⑨ 충주(안림): 1,006호 ⑩ 제주(김녕): 162호</p>

* 인허가 변경, 공모유형 등에 따라 지구별 블록, 세대수 변동가능

② (既 매각부지 3만호 '22.2분기 이후 토지사용시기 도래) 공공택지 인센티브 적용
으로 '21년.下~'22년 1분기 중 사전청약 가능 물량

■ 수도권 19,453호(23BL)	■ 지방 10,124호(10BL)
① 오산(세교): 6,263호	① 김해(진례): 566호
② 이천(중리): 3,174호	② 대구(산단2): 3,707호
③ 양주(회천): 2,569호	③ 세종(행복도시): 3,699호
④ 고양(장항): 2,878호	④ 울산(다운2): 1,446호
⑤ 인천(검단): 4,569호	⑤ 남청주(현도): 706호

③ (既 매각부지 6.4만호 토지사용시기 既도래 & '22.1분기 이전 토지사용시기 도래)
대책발표 후 6개월 내 본 청약시 인센티브 등으로 조기공급 유도

- 토지사용시기 既 도래 물량: 3.7만호(수도권 2.7만호, 지방 1만호)

■ 수도권 26,937호(42BL)	■ 지방 10,614호(17BL)
① 이천(마장): 354호	① 아산(배방): 1,061호
② 오산(세교): 4,544호	② 대구(도남): 2,418호
③ 화성(동탄2, 남양, 비봉, 병점) : 11,558호	③ 부산(장안): 1,685호
④ 인천(검단, 영종) : 6,798호	④ 밀양(나노산단): 785호
⑤ 파주(운정): 131호	⑤ 군산(신역세권): 1,538호
⑥ 안성(아양): 945호	⑥ 창원(가포): 660호
⑦ 양주(회천): 2,168호	⑦ 충남(도청이전신도시) : 708호
⑧ 시흥(장현): 439호	⑧ 보령(명천) : 1,020호
	⑨ 당진(석문산단) : 739호

- '22.1분기 이전 사용시기 도래: 2.7만호(수도권 1.9만호, 지방 0.8만호)

■ 수도권 19,111호(29BL)	■ 지방 7,608호(12BL)
① 오산(세교) 897호	
② 의왕(고천) 1,485호	
③ 평택(고덕) 4,208호	① 남원주(역세권): 1,076호
④ 화성(동탄2) 2,070호	② 양산(사송): 5,836호
⑤ 인천(검단) 1,535호	③ 충남(도청이전신도시): 696
⑥ 파주(운정) 8,916호	

※ '22년 1분기까지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에 限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부서 (담당자)
1. 사전청약 확대 시행			
①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			
예비입주자 모집제도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1.10월	주택기금과
추정분양가 산정·검증가이드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21.10월	주택정책과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HUG 업무기준 마련	'21.9월	주택기금과
청약홈 시스템 개편	시스템 정비 (부동산원)	'21.10월	주택기금과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전청약 시행	-	'21.11월	주택기금과
② 3080+ 공공시행사업			
3080+ 공공시행사업 사전청약 시행	-	'22.下	도심주택 총괄과
2. 사전청약 활성화를 위한 택지공급제도 개선			
택지공급제도 개편	LH 관련 지침 개정	'21.9월	LH
3. 민간시행 사전청약의 정보공개 및 안내			
① 민간시행 사전청약 예정사업 공개			
민간시행 사전청약 관리체계 구축	TF구성·운영 (부동산원-LH-HUG)	'21.9월	주택기금과
② 월간 사전청약 대상 및 청약일정 안내 등			
사전청약의 구체적 내용 공개	시스템 정비·운영	'21.11월	부동산원